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포르투갈, 스페인 -

2018. 12.



목 차

| I. 출장 개요 / 1 |
|----------------------------------|
| 1. 출장목적 |
| 2. 방문기관2 |
| 3. 출장자2 |
| 4. 방문 기간 |
| 5. 주요 일정 |
| |
| Ⅱ. 주요 방문 결과 / 4 |
| 1. 포르투갈 무역투자청 방문 4 |
| 2. 포루투갈 재정위원회 방문12 |
| 3. 스페인 무역투자진흥청 방문20 |
| 4. 스페인 바르셀로나 폭스바겐(세아트) 공장 견학28 |
| |
| ※ 별첨자료 |
| [별첨 1] 포르투갈 무역투자청 면담 자료 |
| [별첨 2] 포루투갈 재정위원회 면담 자료 |
| [별첨 3] 스페인 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 면담 자료 42 |
| [별첨 4] 스페인 폭스바겐(세아트) 공장 소개 자료 58 |

I.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 포르투갈 무역투자청 방문
 - 포르투갈 정부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데 지 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음
 - 또한 포르투갈이 매년 개최하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 "웹 서밋(Web Summit)" 및 외국 인력의 유치를 위하여 포르투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비자제 도(스타트업 비자 등)의 현황과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등에 대한 논의
 - ※ 스타트업 비자제도: 외국 스타트업 기업이 포르투갈에 지사를 두는 경우 최대 4명까지 2년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고, 법인을 설립 하는 경우에 포르투갈 정부가 투자 비용의 절반을 지원
- □ 포르투갈 재정위원회(Portuguese Public Finance Council) 방문
 -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회의"(2018.7.)에 포르투갈 대표로 참석한 재정위원회 집행위원(Executive Member)에 대한 답방
 - ※ 면담대상자: 재정위원회 의장(Teodora Cardoso) 및 집행위원(Miguel St. Aubyn)
 - 포르투갈이 2018년 3,500만유로 초과구간(450억원)에 한하여 최고세율을 인상 한 배경과 2011년 이후 기본세율(25%)에 더하여, 영업이익이 큰 법인에 한정 하여 추가세율을 적용하는 이유 등에 관한 논의
 - ※ 포르투갈은 2018년 법인세율을 기존 28%에서 30%로 인상하였고, 법인세 과표 구간수가 4개로 우리나라 법인세율 구조와 유사
- □ 스페인 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 방문
 - 스페인 정부는 경기침체와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를 모면하고자 2011년 이후 노동개혁을 단행하였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실시 하고 있음

- 조세감면, 기술지원 등 외국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스페인 정부의 지원 현황과 노동개혁에 따른 주요 결과 등에 관한 논의
 - ※ 스페인 실업률은 2012년 12월 26% → 2018년 7월 15.1%로 크게 감소
- □ 스페인 바르셀로나 폭스바겐(세아트) 공장 방문
 - 최근 스페인의 자동차 산업은 외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에 힘입어 뚜렷한 실적 호조
 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스페인 경제에 긍정적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음
 - ※ 스페인 자동차산업은 스페인 GDP의 10%와 수출액의 19%를 차지
 - 시범근로제 도입, 임금 삭감, 근로시간 연장 등 노동개혁 실시에 따른 노사간 협의 과정과
 노동조합이 로봇 도입을 요구한 사례 등 기업 차워의 근로혁신에 관한 논의

2. 방문기관

- 포르투갈 투자진흥청(Aicep Portugal Global Tarde&Investment Agency)
- 포르투갈 재정위원회(Portuguese Public Finance Council)
- ㅇ 스페인 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
- o 스페인 바르셀로나 폭스바겐(세아트) 공장 견학

3. 출장자

- □ 출장단장 : 윤성민(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장)
- □ 출장단원
 - 유희수(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
 - 백경엽(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추계세제분석관)
 - 채은동(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추계세제분석관)
 - 장유진(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행정실무원)
 - 조혜정(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행정실무원)

4. 방문 기간

□ 기간 : 2018. 12. 5(수) ~ 12. 13(목) (7박 9일)

5. 주요 일정

| 일자 | 일정 | 세부일정 | | |
|--------------------|------------------------|--|--|--|
| 12.05(수) | 인천, 포르투갈 리스본 | 출국(인천 09:55)도착(리스본 17:35) | | |
| 12.06(목) | 포르투갈 리스본 | 포르투갈 무역투자청 방문 | | |
| 12.07(금) | 포르투갈 리스본 | 포르투갈 재정위원회 방문 | | |
| 12.08(토) | 포르투갈 리스본, 스페인 바르셀로나 | ○ 리스본(11:50) → 바르셀로나(16:00) | | |
| 12.09(일) | 스페인 바르셀로나 | ㅇ 자료정리 및 면담 준비 | | |
| 12.10(월) | 스페인 바르셀로나 | 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 방문 | | |
| 12.11(화) | 스페인 바르셀로나 | ○ 폭스바겐 바르셀로나 공장 견학 | | |
| 12.12(수) ~13(목) |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천 | ○ 출국(바르셀로나 20:30) ○ 도착(인천 +1day 16:30) | | |

Ⅱ. 주요 방문 결과

1. 포르투갈 무역투자청(aicep Portugal Global)

가. 기관 개요

- □ 명 칭 : 포르투갈 무역투자청(Agência para o Investimento e Comércio Externo de Portugal, aicep Portugal Global)
- □ 위 치 : 포르투갈 리스본 (Av. 5 de Outubro, 101 1050-051 Lisboa)
- □ 설립: 2007년, 포르투갈 투자청(Agência Portuguesa para o Investimento, API)과 포르투갈 외교통상부(Instituto do Comércio Externo de Portugal, ICEP)를 병합한 정부기관으로 설립

□ 설립 목적 및 미션

- 포르투갈 기업의 국제화, 수출활동 촉진 및 포르투갈 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비즈 니스 환경 개발을 위해 설립
-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기업의 국제화를 통해 포르투갈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면담 개요

- □ 일 시: 2018. 12. 6. (목)
- □ 장 소 : 포르루갈 무역투자진흥청 회의실
- □ 면담자 : Miguel Fontoura 국장 등 2인
 - o Miguel Fontoura 국장(Corporate and Investment Division)
 - o Alda Oliveira 매니저(External Relations & Foreign Markets)

[포르투갈 무역투자청 면담]







Miguel Fontoura

Diretor Direção Comercia

Rua de Entrecampos, 28, Bloco B, 12°, 1700-158 Lisboa G: +351 217 909 500 D: +351 217 909 515 miguel.fontoura@portugalglobal.pt portugalglobal.pt



Alda Oliveira

Gestora de Mercado

Av. 5 de Outubro, 101, 1050-051 Lisboa D: +351 217 909 762 alda.oliveira@portugalglobal.pt portugalglobal.pt

다. 시사점

- □ 포르투갈의 대외무역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주무관청인 무역투자청의 기능과 포르투갈의 외국인 투자유치·스타트업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이해
 - ㅇ 포르투갈 무역투자청의 설립과 역할
 - ㅇ 포르투갈의 외국인 투자 지원정책
 -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에너지, 바이오기술 등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골든 비자발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AICEP는 투 자 자문 뿐만아니라 투자기업의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 ㅇ 포르투갈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 정부가 공공벤처자본회사를 설립하여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
 - 스타트업 초기단계 기업에 대해 바우처나 전문가 자문비용 등에 대한 보조 금을 지급, 또한 자율주행차 등과 같은 혁신기술 연구단지 조성 및 행정절차 간소화제도 시행
 - 고급 해외인력의 유치를 위해 스타트업 비자발급프로그램을 운영

라. 면담내용

- □ 포르투갈 무역투자청 설립 및 역할
 - ㅇ 유성민 추계세제총괄과장
 - (질문) 포르투갈 무역투자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o Miguel Fontoura 국장

- (설명) aicep Portugal Global(이하 "AICEP")는 2002년 투자전담기구로 설립된 투자청(API)이 2007년 무역관광청(ICEP)을 통합하면서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AICEP은 포르투갈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AICEP은 특히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의 모든 단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지 제공, 인센티브 협상 등 정착을 위한 지원과 정착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후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AICEP은 북미, 유럽 및 아시아(한국, 중국 및 일본) 등에 50여개의 지점(사무소)가 있으며, 각 사무소마다 FDI Scouts(외국직접투자 유치 전문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AICEP에는약 4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사무소가 있는데, 2010년 폐쇄되었다가 2016년 재개설하였습니다.

윤성민 추계세제총괄과장

- (질문) 재정위기 이후 최근 포르투갈의 경제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o Miguel Fontoura 국장

- (설명) 포르투갈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유로존에 가입한 인구 1,000만명의 소규모 국가입니다만, 지리적으로는 유럽 최서단에 위치해 있어 유럽 진입의 관문이며, 아메리카대륙이나 아프리카 국가로 진출을 위한 교두 보로서의 역할이 모두 가능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정위기 기간인 2011~2013년(2011년 -1.6%, 2012년 -3.2%, 2013년 -1.1%) 동안 3년 연속하여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였지만, 2014년 IMF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후 GDP성장률이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된 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GDP성장률은 2017년의 경우 2.7% 성장하였고, 2018년은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2018년은 7.3%로 예상하고 있는데, 재정위기 기간인 2013년 16.2% 대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 포르투갈의 대외무역 규모 중 수출은 550.3억 유로(2017년 기준) 수준입니다. 포르투갈은 GDP의 5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장려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AICEP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포르투갈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
 - (질문) 포르투갈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유치 현황과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에 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o Miguel Fontoura 국장

- (설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르투갈은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평균 50억 유로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에너지, 바이오기술, 전기·전자부문, 화학, 정보통신·IT, 관광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는 독일 Volkswagen 계열사 생산공장 Autoeuropa, 브라질 항공기 제작업체Embraer, 프랑스 Renault 자동차 부품공장 (Renault Cacia), 미국 Cisco Systems, Nokia Siemens, 스웨덴 IKEA그룹, 프랑스 Leroy Merlin 등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 중에는 대표적으로 한온시스템이 있습니다. 1998년 설립된 후 재정위기 기간에도 사업철수를 하지 않고 투자규모를 늘려왔습니다.

O Alda Oliveira 매니저

- (설명)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외국자본과 인력유치를 위해 골든비자 발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 대한 투자를 최소 5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50만 유로 이상 상당 부동산매입, 100만 유로 이상 자본 투자, 일자리 10명 이상 창출에 기여하는 외국인(쉥겐조약 가입국 출신 제외 투자자)에 대하여 장기거주를 허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Golden Visa 발급 프로그램을 시행 이후 2017년 까지 총 30억유로 상당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중국인으로 70%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스본의 고층건물 대부분은 중국 사업가들이 매입하였고, 중국 기업들이 포르투갈의 금융, 전력 등 사회인프라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한국인의 골드비자 신청문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희수 추계세제분석관

- (질문)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포르투갈의 노동시장 유연성 등 전체 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o Miguel Fontoura 국장

- (설명) 포르투갈은 2011년 재정위기 당시 해고사유 확대, 실업수당 지급 축소, 휴가 및 공유일 단축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노동법 개정의 주된 목적은 장기실업 감소, 고용창출촉진, 근로자의 원활한 이동입니다. 이는 상당히 개혁적인 조치로 노동법 개정이후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포르투갈은 1990년 초 폭스바겐 자동차 생산 공장 밖에 없었으나 최근에는 르노,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주요 기업의 생산 공장을 유치하였으며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포르투갈의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

- 채은동 추계세제분석관
 - (질문) 최근 포르투갈에서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증가의 원인은 무엇이며, 특별한 정책 또는 세제상 혜택을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o Miguel Fontoura 국장

- (설명)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에서 2017년 창업한 벤처기업은 6,300개로 5년 연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스타트업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포르투갈은 교육수준이 높으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많으며 이들의 인건비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저렴한 것을 첫 번째 요인으로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포르투갈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 투자 비용의 50%를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EU 소속 스타트업 기업처럼 EU의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R&D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버, 구글, 넷플릭스 등 IT기업들과 존 슨앤존스 같은 제약기업이 포르투갈에 R&D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O Alda Oliveira 매니저

- (설명) 좀 더 구체적인 정부 정책으로는 「StartUP Portugal」이라는 국가전략을 2016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 강화, 스타트업 재정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기업의 세계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하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 생명과학, 관광분야의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벤처자본 회사를 설립하여 엔젤투자자와의 공동투자금 조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벤처캐피털과 4억유로 상당의 편드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 필수적인 인큐베이터나 전문가 자문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와 같은 혁신기술 분야의 연구원, 생산자, 투자자 유치를 위한 기술자유구역(Zona Franca Tecnologica)을 조성하였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행정절차간소화제도(Simplex)등의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제상으로는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8년부터는 스타트업 비자 발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스타트업이 포르투갈에 지사를 설립할 경우 최대 4명까지 2년간 사업을 진 행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정부가 매년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블로체인 등신기술을 전시하는 웹서밋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웹서밋은 MWC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유럽 최대규모 첨단산업 이벤트로, 2009년 첫 개최 이후 5년간전년 대비 참관객 기준 10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률로 규모를 확장해 왔고, 2028년까지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주요 테크놀로지 행사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포르투갈의 웹서밋은스타트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전세계 2천여개의 스타트업기업이 참여하며 각국의 투자자와 창업자를 연결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 윤성민 추계세제총괄과장

- (질문) 마지막으로 한국의 기업은 어느 정도 포르투갈에 진출하고 있는지와 한국관광객은 어느정도 방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Miguel Fontoura 국장

- (설명) 한국기업 중에서는 한온시스템이라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이며, 삼성전자, LG전자, 한화큐셀(태양광발전) 등이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등 한국기업의 포르투갈에 유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종교적 목적 및 문화 컨텐츠 등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보다 많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한국 항공사와 직항 노선을 곧 개설할 계획입니다.

2. 포르투갈 재정위원회(Portuguese Public Finance Council)

가. 기관 개요

- □ 명 칭 : 포르투갈 재정위원회(Conselho das Finanças Públicas, Portuguese Public Finance Council)
- □ 위 치 : 포르투갈 리스본 (Praça de Alvalade, n.º 6 10.º, 1700-036 Lisboa)
- □ 설 립 : 2011년 5월 예산기본법 개정에 의해 2012년 설립된 독립재정기구
- □ 설립 목적 및 미션
 - 위원회는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정책의 일관성, 계획된 목표의 준수 및 국 가개정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
 - 민주주의와 경제정책 결정의 질을 높이고, 포르투갈의 재정적 신뢰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면담 개요

□ 일 시 : 2018. 12. 7. (금)

□ 장 소 : 포르루갈 재정위원회 회의실

- □ 면담자 : Maria Teodora Osório Pereira Cardoso 등 3인
 - o Maria Teodora Osorio Pereira Cardoso : 재정위원회 초대의장
 - 포르투갈 중앙은행 1973-1992년 근무(거시경제학, 통화정책 및 국제기구),
 1992-2008년 Banco Português de Investimento의 자문위원, 1996-2008년
 Advisory Council of the Instituto de Gestão do Crédito Público (IGCP)의 자문위원, 2008-2012년 포르투갈 중앙은행 이사회, 2012년부터 공공재정위원회 의장 역임
 - o Miguel St. Aubyn : 집행위원(Executive Member of the Senior Board)
 - 포르투갈 재정위원회 집행위원 자격으로, "2018 OECD 독립재정기구"(2018.7.)

포르투갈 대표로 참가

- 1966년생, 포르투갈 리스본대학교 경제·경영학과 교수
- Francisco Ruano : 재정위원회 조세담당관
 - 법인세 등 조세담당

[포르투갈 재정위원회 면담]





다. 시사점

- □ 포르투갈 재정독립기관인 재정위원회의 기능과 최근 포르투갈 노동· 재정·조세 정책 등에 대한 이해
 - 포르투갈 재정위원회의 설립과 재정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
 - 포르투갈 최저임금 인상 및 공무원 주당 근로시간 축소 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2016년 안토니우 코스타 총리가 집권한 이후 최저임금을 2016년 월 505유로 에서 2017년 530유로, 2019년 600유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 법인세 차등세율 및 최근 대규모 법인에 대한 세율인상 등 포르투갈은 우리나라
 와 유사한 법인세 체계를 유지
 - 법인세율 구조의 경우,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에 따라 10~25% 4단계 초과누진 세율 구조이며 포르투갈은 기업의 영익이익 규모에 따라 21~30% 4단계 단순 누진세율 구조
 - 2018년부터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세율을 3%p 인상하였고, 포르투갈 또한 2018년부터 영업이익 3,500만유로 초과 법인에 대해 세율을 2%p 인상
 - 음식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하(23% → 13%)에 따른 가격 영향 등

라. 면담내용

- □ 포르투갈 재정위원회 설립 및 역할
 - 윤성민 추계세제총괄과장
 - (질문) 독립재정기관으로서 재정위원회의 설립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 o Maria Teodora Osorio Pereira Cardoso 의장
 - (설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2010년부터 독립적인 재정기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1년 4월 법이 개정되어 재정위원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그해 10월에 재정위원회 설립을 주도한 총리가 사임하면서 설립이 늦어졌습니다. 2012년에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저희는 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지만 예산, 정부정책 등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재정위원회는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며, 예산의 집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세입-세출 등에 대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원회는 포르투갈의 구제금융과 관련이 깊습니다. 포르투갈 재정위기 과정을 설명하자면, 개인의 부동산대출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이 어려워지면서 3군데 은행이 도산했습니다. 이런 은행은 공공재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가계, 은행, 정부 모두 다같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들어 부채비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 포르투갈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상환해야 하는 국가이고 유로존에 포함된 국가이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해야 하고 EU집행부에서 정한 재정건전성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 유성민 추계세제총괄과장

- (설명) 우리나라도 재정부채는 일정 한도로 관리되고 있지만, 부동산대출로 인한 가계부채문제가 최근 부각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

- (질문) 경제전망을 통해 총수입, 총지출 등에 대한 전망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재정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지 궁급합니다.

o Maria Teodora Osorio Pereira Cardoso 의장

- (설명) 포르투갈은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GDP를 전망하고 이를 기준으로 총수입-총지출 등을 전망해야 하는데,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유희수 추계세제분석관

- (질문) 한국은 개별 사업과 관련하여 5년, 10년 단위로 비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o Maria Teodora Osorio Pereira Cardoso 의장
 - (설명)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으나 현재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부동산정책 등에 대한 전망과 연구는 주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포르투갈 경제·조세 정책 전반

- 채은동 추계세제분석관
 - (질문) 최근 한국은 공공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습니다. 포르투갈도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등과 관련하여 포르투갈의 정책추진 배경과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 o Maria Teodora Osorio Pereira Cardoso 의장
 - (설명) 포르투갈은 2000년대 유로존에 들어오면서 주변국과 경쟁하는 입장이 기 때문에 노동력 해외유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 속도에 대해 포르투갈도 잘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재정여건의 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방향이 맞지만, 그 속도에 대해서는 늘 예의주시하면서 적당한 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

- (질문) 포르투갈은 저축율이 낮은 가운데, 최근에 국가 신용도가 지출 구조조 정 등을 통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o Maria Teodora Osorio Pereira Cardoso 의장
 - (설명) IMF에서 평가한 국가 신용도가 1단계 상승한 것은 공공지출 예산삭감을 통해 재정여건이 좋아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공공지출 삭감은 추후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 정부는 최근 공공투자를 다시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 채은동 추계세제분석관

- (질문) 어제 식당을 이용했는데,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은 23%이지

만 레스토랑의 식품메뉴는 13%로 낮은 세율로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간세목인데, 이러한 조세정책이 재정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급합니다.

o Maria Teodora Osorio Pereira Cardoso 의장

- 모든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한 것이 아니고, 일부 관광산업 및 일반대중이 소비하는 항목에 대해 10%p 낮은 세율을 적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세금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식당의 13% 낮은 세율은 프랑스 정책을 참고한 것인데 전망했던 만큼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포르투갈 법인세 구조 및 최근 세율인상 배경

○ 채은동 추계세제분석관

- (설명) 사전에 보내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구조이며, 세율은 과표구간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이하 20%, 200~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적용된다. 3,000억원 초과구간에 해당하는 법인이 2016년 법인세 신고기준약 80여개로 추정됩니다.
- (질문) 포르투갈 법인세율 구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법인세율 구조 비교(중앙정부): 2018년]

(단위: %)

| 우리나라 (초과누진구조) | 과표 구간 | 2억원 이하 | 200억원 이하 | 3,000억원 이하 | 3,000억원 초과 |
|------------------|----------|--------------|--------------|----------------|----------------|
| | 세율 | 10 | 20 | 22 | 25('17년 22) |
| 포르투갈 | 과표 구간 | 150만유로 이하 | 750만유로 이하 | 3,500만유로 이하 | 3,500만유로 초과 |
| (단순누진구조) | 세율 | 21 | 24 | 26 | 30('17년 28) |

o Francisco Ruano 조세담당관

- (설명) 포르투갈은 기본세율 21%를 기준으로 하되, 과세표준이 큰 기업은 3~7% 추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한국과 달리, 포르투갈은 단순누진세율로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이 3,500만유로를 초과한 기업은 과세표준에 30% 세율을 적용하다보니, 과표 3,0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22% 세율이 적용되는 한국보다 세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 다만, 법인세 지방세율 1.5%를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31.5%가 됩니다.

○ 채은동 추계세제분석관

- (설명) 한국은 중앙정부 법인세율의 10분의 1 수준으로 1.0~2.5% 세율로 지방법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가 되니, 포르투갈의 법인세 최고세율 31.5%보나 4.0% 낮습니다.
- (질문) 한국은 재정건전성 등을 위해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법 인을 대상으로 세율을 3%p 인상했습니다. 포르투갈 또한 법인세율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o Maria Teodora Osorio Pereira Cardoso 의장

- (설명) 포르투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앙정부 25%, 지방정부 1.5% 등 총 26.5% 단일세율 구조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인의 영업이익(taxable profit)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왔고, 그 세율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의 법인세율 인상은 국가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ㅇ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

(질문)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게 된 배경과 최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수 현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Francisco Ruano 조세담당관

- (설명) 포르투갈은 기본 법인세율과 영업규모별 추가세율 구조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기본세율이 기존 25%에서 2014년 23%, 2015년 21%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으며, 과세표준 3,500만유로 초과기업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여 30% 세율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설명) 중앙정부 기준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2011년까지 25%, 2012년 29.5%(1,000만유로 초과, 기준 25% + 추가 4.5%), 2013년 30%(750만유로 초과, 기준 25% + 추가 5%), 2014년 30%(3,500만유로 초과, 기준 23% + 추가 7%), 2015년 28%(3,500만유로 초과, 기준 21% + 추가 7%)로 2015년에 세율이 감소하였다. 2016년 정부기조가 바뀌면서 2018년부터 30%(3,500만유로 초과, 기준 21% + 추가 9%)로 세율이 다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설명) 포르투갈은 3,500만유로를 초과하는 법인수가 74개 정도입니다. 세율을 올린 법인수가 80여개인 한국과 매우 비슷한 수치로서,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상하다보니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관련 자료 PDF 첨부)

※ 한국의 과세표준 500억원(유로화 기준 3,900만유로) 초과 법인수는 2016년 기준 482개로, 한국의 법인수가 포르투갈 법인수(74개)보다 많은 등 영업이익이 크 게 발생하는 법인의 수가 한국이 6배 이상 많았음

3. 스페인 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ACCIO)

가. 기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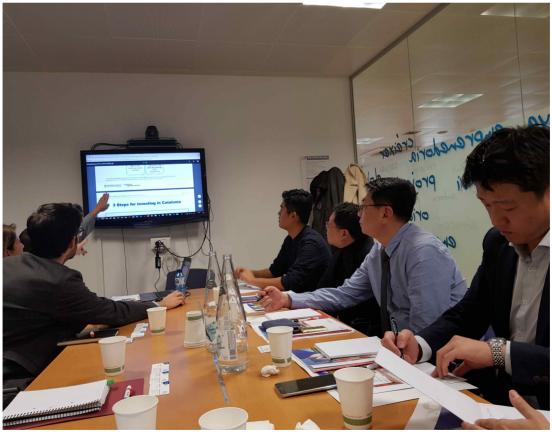
- □ 명 칭 : 스페인 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Conselho das Finanças Públicas, Portuguese Public Finance Council)
- □ 위 치 : 스페인 바르셀로나 (Passeig de Gràcia, 129 08008 Barcelona)
- □ 설립: 스페인 카탈루냐 주(州)정부가 운영하는 비영리 정부기관
- □ 설립 목적 및 미션
 -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의사결정에서부터 최종법인 설립에 이르 기까지 다방면으로 지원
 - 카탈루냐 지역에서 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 제공등 현지 진출 및 정착을 지원

나. 면담 개요

- □ 일 시 : 2018. 12. 10. (월)
- □ 장 소 : 스페인 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 회의실
- □ 면담자 : Sònia Gonzalez i Relats 부국장 등 3인
 - Sonia Gonzalez i Relats : 국제국 부국장
 - Empar Masio : 국제투자부문 아시아 태평양 국제프로젝트 매니저
 - Marc Puyuelo i Roca : 해외직접투자(FDI)부문 홍보 매니저
 - Marc Duran : 인센티브자문부문 매니저

[스페인 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 면담]







다. 시사점

- □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카탈루냐 주정부의 지원 사례를 살펴봄
 - 카탈루냐 주(州)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아닌 주정부 별도의 무역투자진흥청을 운영
 - 무역투자진흥청은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국 기업의 외국 진출을 위하여 무역투자진흥청의 전세계 39개국 거점 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음
 - 무역투자진흥청은 카탈루냐 지역의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카탈루냐 지역의 대부분의 기업이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카탈루냐 주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카탈루냐 주정부는 기업이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45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사회보장보험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있음
 - R&D, 에너지 절감 등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라. 면담내용

- □ 스페인 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의 역할
 - o 윤성민 추계세제총괄과장
 - (질문) 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o Sonia Gonzalez i Relats 부국장
 - (설명) 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카탈루냐 주(州)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지식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외국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서부터 법인 설립까지의 전 단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5,500여개의 투자 프로젝트 경험을기반으로 한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무역투자진흥청은 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카탈루냐 지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외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투자진흥청의 전 세계 거점 사무소를 통하여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의 경우 무역투자진흥청의 원스탑(One-Stop)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자국 기업의 외국 진출은 전 세계 39개국 거점 사무소와 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성민 추계세제총괄과장

- (질문) 우리나라에도 KOTRA와 같은 기관이 있고, 무역투자진흥청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스탑(One-Stop)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 부탁드립니다.

o Sonia Gonzalez i Relats 부국장

- (설명) 원스탑 서비스는 외국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에서부터 법인 설립까지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총 7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투자인센티브'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기업 입지 선정'을 위하여 카탈루냐 전역의 산업 빌딩, 사무실, 물류센터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현지 정착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투자기업 임직원의 취업 및 거주 허가 취득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노베이션'이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기술협력, 기술이전 등 공동 R&D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외국기업에게 주요 정부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편, 관련 법률 및 투자 관련 산업계 현황 등 '투자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외국기업에게 필요한 제조사, 기술개발자 등 필요한 '공급선 발굴' 등을 지원합니다.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

- (질문) 무역투자진흥을 위해서는 전 세계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은 전 세계 39개국에 거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에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Empar Masio 아시아 태평양 국제프로젝트 매니저

- (설명) 아시아와 태평양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국의 서울에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도쿄, 베이징, 상하이, 홍콩, 싱가폴 등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광화문 인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유희수 추계세제분석관

- (질문) 중앙정부가 아닌 주(州)정부에 의하여 별도의 무역투자진흥청이 운영 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방문한 본사의 외형만 보더라도 작지 않은 규모임 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카탈루냐가 스페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지역 기업의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o Marc Puyuelo i Roca 매니저

- (설명) 카탈루냐 인구는 스페인 전체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약 750만명 정도이고, GDP는 223.6조 유로로 카탈루냐 산업이 스페인 전체 산업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수출액은 65.1조 유로로 스페인 수출 기업의 34%가 카탈루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탈루냐는 스페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무역이 활발한데, 대부분의 카탈루냐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 정부의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한편, 현재 7,000여개의 외국기업이 카탈루냐에 진출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The Financial Times」는 2018년과 2019년에 남유럽 도시 중에서 투자하기 좋은 도시 1위로 카탈루냐 지역을 꼽았습니다. 이와 같이 카탈루냐 지역은 외국기업들에게 투자지로서 매력적인 요건을 다수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카탈루냐 주정부는 외국기업들이 안심하고 카탈루냐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카탈루냐 주정부의 지원

- 채은동 추계세제분석관
 - (질문) 스페인은 유럽연합(EU) 가입국입니다.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관련 법 규 등도 EU의 규정 등을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외국기업이 카탈루냐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까?

o Marc Puyuelo i Roca 매니저

- (설명) 네, 맞습니다. 카탈루냐에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은 EU가입국과 비EU국가가 다릅니다. EU가입국에는 특정 법적 허가 등이 요구되지 않는 반면, 비EU국가의 기업은 2개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그 2개 법률은 외국기업의 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The Entrepreneurs Act(L14/2013)"과 임직원의 이민, 이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Law on Foreigners (LO4/2000)"입니다.
- 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은 외국기업이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자문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

- (질문)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카탈루냐의 최저임금 등 노동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O Marc Duran 매니저

- (설명) 스페인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주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 관련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늘려 왔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707.7유로/월(9,907.8유로/년에 해당, 2개월분의 상여 포

함)로 나타났고, 사회보장보험의 보험료로 고용주가 30.9%, 피고용인이 6.35%를 부담하였습니다.

○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

- (질문) 기업의 고용을 증진시키지 위한 카탈루냐 주정부의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O Marc Duran 매니저

- (설명) 카탈루냐 주정부는 기업의 고용 증진을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 보장보험의 보험료를 감면해 줍니다. 다만, 피고용인이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또는 45세 이상인 사람인 경우에 이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채은동 추계세제분석관

- (질문) 스페인과 카탈루냐 지역의 법인세 등 세금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o Sonia Gonzalez i Relats 부국장

- (설명) 카탈루냐 지역에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이유 중 하나는 스페인이 타 EU국가에 비하여 세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EU국가가 평균적으로 GDP의 40.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반면, 스페인은 그보다 5.4%p 낮은 34.6%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이후 법인세는 기본세율을 25%로 부과하는데, R&D 또는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는 경우 많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19%에서 24%사이로 부과합니다.

o 유희수 추계세제분석관

- (질문) R&D 또는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셨는데, R&D 지원 또는 인센티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o Sonia Gonzalez i Relats 부국장

- (설명) R&D 또는 혁신, 교육, 에너지 절감, 고용 등에 뚜렷한 성과를 거두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D 활동을 활발히 하는 기업에게는 R&D 지출의 최대 59%에 해당하는 금액의 법인

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사회보장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 윤성민 추계세제총괄과장

- (질문) 금번 회의를 통해서 카탈루냐 주정부와 무역투자진흥청이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의 기업은 어느 정도 카탈루냐에 진출하고 있습니까?

o Sonia Gonzalez i Relats 부국장

- (설명) 한국의 기업 중에서는 삼성, KT, 한국타이어, 미원 등이 투자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카탈루냐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아트(폭스바겐) 자동차 공장 견학

- □ 일 시: 2018.12.11.(화)
- □ 장 소: 바르셀로나 세아트 자동차 공장(Cami Complex Seat, s/n, 08760 Martorell, Barcelona)
- □ 바르셀로나 세아트 자동차 공장 견학 개요1)
 - 세아트는 1919년 이탈리아의 피아트 스페인 지사로 시작했고 195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국영기업인 '투리스모 자동차 회사(Sociedad Espanola de Automoviles de Turismo)'로 설립되었고 1953년부터 완성 자동차를 생산
 - 1990년 폭스바겐 그룹이 세아트의 주식을 99.99% 매입하면서 폭스바겐AG 산 하로 병합
 - 바르셀로나 세아트 공장(하루 3천대의 자동차를 생산)은 주력 모델인 세아트 브랜 드인 레온, 쿠프라와 아우디 Q-3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83%를 수출
 - 경제위기 기간 동안 매출액 감소로 공장 가동률이 30%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으나 2012년 이후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사상 최대인 52만대(2017년 47만대)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
 - 2017년 기준 95.5억 유로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1.5억 유로 를 기록
 - 폭스바겐의 스페인 직원 2만2천명 중 대부분인 1만 2천명이 세아트 공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R&D 센터 근무인력은 1,300명임
 - 2020년까지 폭스바겐 그룹은 스페인 제조공장에 42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 며. 대부분이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라인 증가에 집중되어 있음

¹⁾ 견학 당일 카탈루냐 독립 관련 집회 및 세아트공장 부분 파업으로 견학이 축소 진행됨

[세아트 공장 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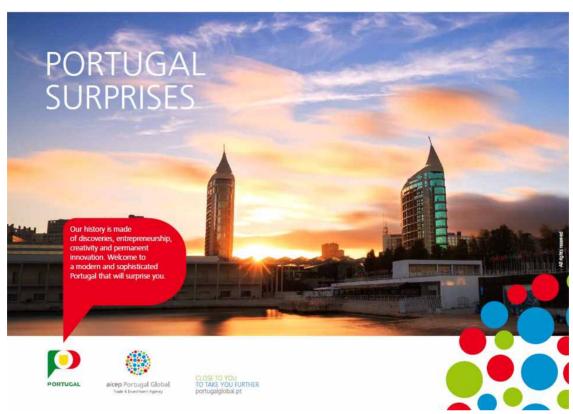


[생산 완료 후 판매 대기 중인 차량]



* 공장시설에 대한 엄격한 보안으로 인해 공장 내·외부 사진 촬영 불가하여 견학 버스 내에서 촬영

[별첨 1] 포르투갈 무역투자청 면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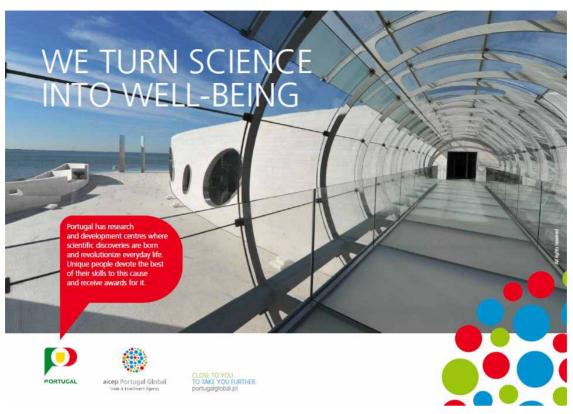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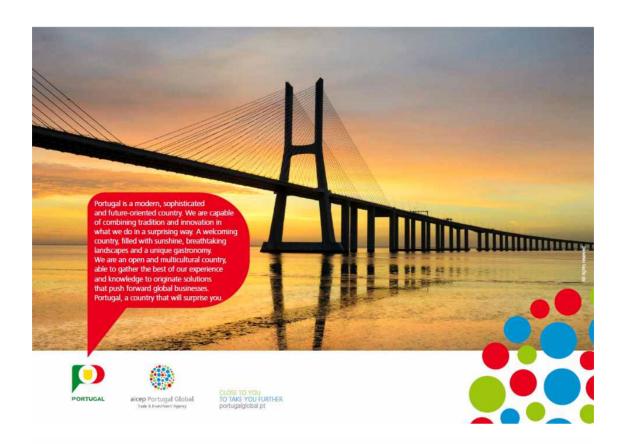












PORTUGAL SURPRISES

portugalglobal.pt aicep@portugalglobal.pt

AICEP would like to thank all the Portuguese entities that have made this presentation possible. All rights reserved.





CLOSE TO YOU TO TAKE YOU FURTHER portugalglobal.pt



[별첨 2] 포르투갈 재정위원회 면담자료

□ 포르투갈 법인세율 관련 자료

Miguel St. Aubyn (Portuguese Public Finance Council)

2. Corporate tax rate structure

10

CURRENT CORPORATE TAX RATE STRUCTURE IN PORTUGAL

In Portugal, in the year of 2018, the corporate tax rate structure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 A general tax rate of 21% that is applicable to the taxable income of the company (taxable profits deducted from past losses and certain tax benefits);
- Plus, State surcharge rates that depends on the amount of the taxable profits, and it
 is applicable to the amounts that exceed the following lim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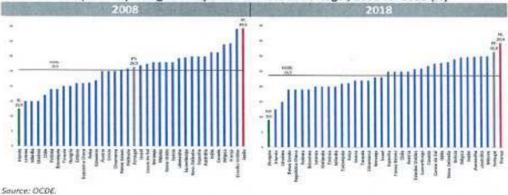
Table 1. State surcharge rates, 2018

| Taxable profit (€) | Rates (%) |
|------------------------------|-----------|
| From 1,500,000 to 7,500,000 | 3 |
| From 7,500,000 to 35,000,000 | 5 |
| Over 35,000,000 | (9 |
| | |

 Plus, a municipal surcharge rate that applies to the taxable income and that it is chosen by the municipalities to a limit of 1,5%.

Therefore, the top marginal corporate tax rate in Portugal reaches 31,5% (for taxable incomes higher than 35 M€) which leaves Portugal with the second highest rate in all OECD.

Graph 1. Top marginal corporate tax rate in Portugal, 2008 vs. 2018 (%)



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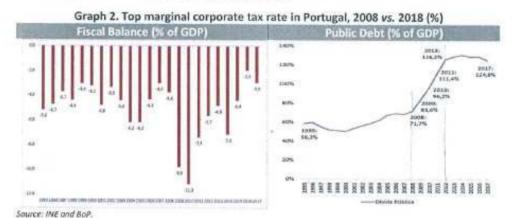
Before 2010, Portugal did not have the State surcharge rate system although the general tax rate at that time reached 25%. Summing up the municipal surcharge rate of 1,5% (that already existed at that time), the top marginal tax rate was 26,5% for all levels of taxable profits, which meant that the CIT in Portugal was a quasi-proportional tax (there was some exceptions for SMEs or some municipalities could charge a rate less than 1,5%).

After the 2008-2009 financial crisis, and with the rise of the financial turbulence registered in the peripheral euro area countries in the year of 2010, the Government of Portugal adopted

Colaborador: Francisco Ru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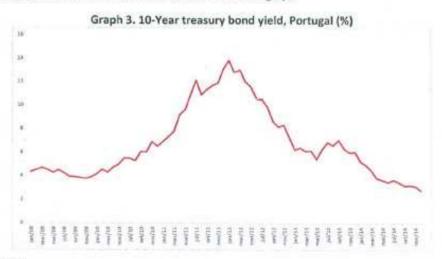
some measures in order to tackle the first impact of the rising fiscal deficit and debt. Therefore, on June 2010, the Parliament approved the introduction of the state surcharge system although, at that time, this state surcharge consisted basically on a tax rate of 2,5% applicable to the taxable profits above 2 M€. According to the Tax Administration data, in 2010, 2090 companies had to pay this new State surcharge.

The reasons for the adoption of this measure are expressed on the explanatory note of the Proposal of the Law that was approved by the parliament relating, essentially, with the necessity that the Government had, at that time, to control the high deficit and its impact on the public debt level (for more info on these reasons click here).



On July 2010, some more measures were implemented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but the ones with main financial importance related with the increase of the 3 rates of the VAT (from 5%, 12% and 20% to 6%, 13% and 21%) and the introduction of some changes in the PIT tax rates (namely the increase of the taxation on capital gains to 21,5% (previously 20%)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tax of 46,88% rate for higher incomes)

However, these measures were insufficient to control the fiscal deficit and to calm the international investors as it can be observed in the next graph.



Source: BoP.

Colaborador: Francisco Ruano

Therefore, Portugal asked for a joint intervention of the IMF, EC and ECB, in order to obtain a bail-out program and to implement a detailed financial adjustment program that lasted until 2014.

During this period (2011-2014), several measures were implemented to strengthen the Portuguese fiscal position which led to a general hike on practically all the taxes. For what concerns the analysis of the corporate tax rate structure, the changes adopted in order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were implemented, essentially, during the period 2011-2013 and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2012

 Maintenance of the general tax rate in 25% and the municipal surcharge in 1,5% with the following change in the state surcharge:

| Taxable profit (€) | Rates (%) | | |
|------------------------------|-----------|--|--|
| From 1,500,000 to 10,000,000 | 2,5 | | |
| Over 10,000,000 | 4,5 | | |

Top marginal corporate tax rate in Portugal, 2012: 31%

2013

 Maintenance of the general tax rate in 25% and the municipal surcharge in 1,5% with the following change in the state surcharge:

Table 2. State surcharge rates, 2013

| Taxable profit (€) | Rates (% | |
|-----------------------------|----------|--|
| From 1,500,000 to 7,500,000 | 3 | |
| Over 7,500,000 | 5 | |

Top marginal corporate tax rate in Portugal, 2013: 31,5%

2014

 Decrease in the general tax rate from 25% to 23%, maintenance of the municipal surcharge in 1,5% with the following change in the state surcharge:

| Taxable profit (€) | Rates (%) | | |
|------------------------------|-----------|--|--|
| From 1,500,000 to 7,500,000 | 3 | | |
| From 7,500,000 to 35,000,000 | 5 | | |
| Over 35,000,000 | 7 | | |

Top marginal corporate tax rate in Portugal, 2014: 31,5%

2015

Colaborador: Francisco Ruano

 Decrease in the general tax rate from 23% to 21%, maintenance of the municipal surcharge in 1,5% with the following change in the state surcharge:

| Taxable profit (€) | Rates (%) | |
|------------------------------|-----------|--|
| From 1,500,000 to 7,500,000 | 3 | |
| From 7,500,000 to 35,000,000 | 5 | |
| Over 35,000,000 | 7 | |

. Top marginal corporate tax rate in Portugal, 2014: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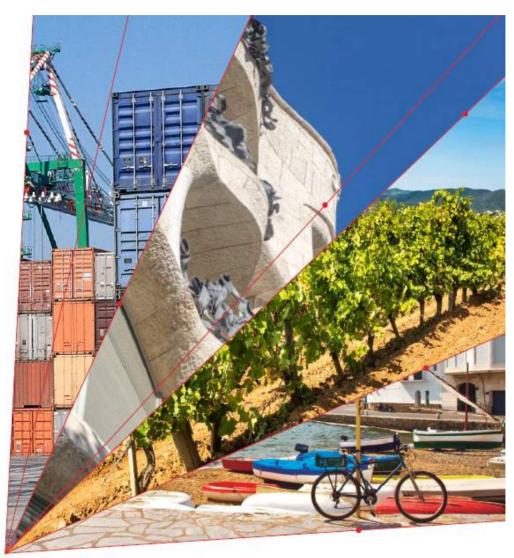
2016 and 2017

- · No changes.
- Top marginal corporate tax rate in Portugal, 2016-2017: 29,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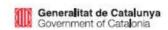
The most recent change in the corporate tax rate was introduced with the SB/2018, and it was not firstly proposed by the government in the Draft State Budget for 2018. This measure was simply a consequence of parliamentary negotiations. The measure was proposed by the junior members of the parliamentary coalition and ended up to be accepted by the party that holds the Office. Since Portugal is no longer under immediate financial pressure, the main reason for this rate hike did not come directly from a pure financial necessity rationale (as it was argued in 2010) but it was essentially based on political grounds, i.e., the two junior parties of this coalition argued that this measure would only affect 76 companies and that the expected revenue (100 Me in their estimations and 60 M€ in the government projections) was necessary to ease the financial and fiscal burden that is being carried by the working class (more detail here).

[별첨 3] 스페인 카탈루냐 무역투자진흥청 면담자료



CataloniaConnects

Catalonia o Trade & Investment



Catalonia

The Financial Times sees Catalonia as the top Southern European Region in its latest report on the most attractive European locations for investments. Barcelona comes first on the continent in FDI strategy and investment attraction policies

Strongly industrialized, Catalonia is one of Southern Europe's main economic powerhouses. Barcelona. is the 5th most attractive investment location in Europe. (EY European Attractiveness Survey 2016).

Catalonia in figures

- Area: 32,108 km²
- Population: 7.5 million (2016)
- . GDP: €223.6 billion (2016)
- GDP per capita: €29,966/year (2016)
- Exports: €65.1 billion (2016)
- Imports: €77.8 billion (2016)
- Tourists/year: 18 million (2016)

Business data

- Companies: 596,196 (2016)
- Industrial companies: 35,698 (2016)
- Innovative companies: 9,449 (2015)
- Regular exporting companies: 16,929 (2016)
- Foreign companies: 7,086 (2016)
- Foreign investment: €4,857 million (2016)
- Catalan companies abroad: 9,256 (2016)

16%

OF SPANISH POPULATION/

OF SPANISH GDP

OF SPANISH INDUSTRY

OF SPANISH **EXPORTS**

OF SPANISH BUSINESS EXPENDITURE IN R&D

OF REGULAR EXPORTING COMPANIES IN SPAIN

International business appeal

Foreign companies in Catalonia





Barcelona



 One of the world's top spots to live & work, a magnet for business & professionals and a global benchmark for mobile & smart cities

1st

Barcelona is the 1st emerging creative city in the world. BCD, 2016

2nd

Barcelona is the second Smart City in the world after Singapore.

Juniper Research, 2016

3rd

Catalonia is the 3rd Western European destinat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R&D. fDi Markets, 2011-2016

4th

Barcelona is the 4th European city for scientific production. BarcelonaTech (UPC)

5th

Barcelona is the 5th European region in terms of startups. EU-Startups



Catalonia

A connected ecosystem of FDI opportunities in a wide range of business sectors



INDUSTRIAL SYSTEMS

One can find a wide range of companies offering efficient technological and hardware solutions to clients for product manufacturing or service provision with specific needs.



FOOD INDUSTRIES

This sector, generating almost 20% of the industrial Catalan GDP, features large business groups with local and foreign capital, a long and innovative tradition and well-known brands, as well as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adership.



CHEMICAL, ENERGY AND RESOURCES INDUSTRIES

Catalonia accounts for over 40% of Spain's chemical turnover and has key activitie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industry, characterized by skilled management of scarce resources (water, oil) and waste (urban and industrial).



HEALTH AND LIFE SCIENCES INDUSTRIES

Pharma is a traditional driver of the local economy in all fields: pharmaceuticals, biotechnology, fine chemistry, medical technologies, cosmetics and nutraceutics. Catalonia has a unique and internationally recognized hospital research model with health research institutes located near all major university hospitals.



DESIGN INDUSTRIES

This sector features fashion (textile manufacturing, skins, leather goods, jewellery and costume jewellery) and home furnishings and accessories (furniture, lighting, textiles and other articles for the home), with cutting-edge companies with brand, retail and contract strategies. Catalonia is also home to a large number of renowned design schools, largely based in Barcelona.



CULTURAL AND EXPERIENCE-BASED INDUSTRIES

A first class tourist sector with a privileged location and climate, outstanding cultural and gastronomic diversity. The Barcelona brand is associated with design, fashion, gastronomy, architecture, sport, congresses, trade fairs and international festivals, business and quality of life.



SUSTAINABLE MOBILITY INDUSTRIES

Manufacture of land transport for people and goods with an emphasis on sustainability and connectivity is on the rise, including automobiles, railways, motorcycles and related components. 270 companies operate in the Catalan smart city sector.



Connecting you___ to a competitive economy

Business services

An established and accessible network of services ranging from legal advisors to IT, HR, media companies, developers, among others.

Suppliers

A wide and dynamic service base makes it easy to find suppliers for any specific area of business.

Mobility for your business and workers

A modern and efficient transport system simplifies mobility in Catalonia's capital as well as connecting it to its surroundings.

Productive work force

Labour productivity has grown by some 15% over recent years and is higher than the EU-28

High value office space

An extremely wide range of some of the best value for money office space in Europe.

21% 50%

OF CATALAN GDP = INDUSTRY

OF CATALAN GDP = INDUSTRY & RELATED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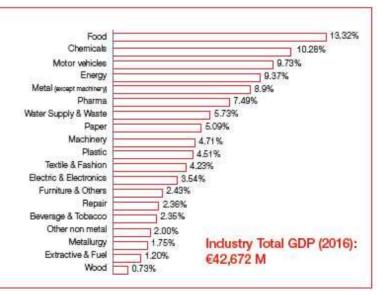
CLUSTERS REPRESENTING 2,200 COMPANIES AND AGENTS

Shared Services Centres & Contact Centres

Due to its competitive advantages, Catalonia is the ideal base for Shared Services Centres. Contact Centres or BPOs.

Catalonia has a diverse and dynamic industrial base

For incoming companies this diversification is both a hub of high added value industries and a dynamic pool of services and suppliers in all business areas, as well as a market for products.



Connecting you

to the world

Be as global as you want in an open trading economy, specialised in international trade and with the infrastructures to make it happen

An efficient mix of far-reaching infrastructures

Barcelona is one of Southern Europe's few cities with full-modal transport (port, airport, motorways and railway) within a 12-km radius, each with global connectivity.



O Barcelona airport

Best Southern European Airport 2016
Handling around than 44 million passengers yearly, it is
the best airport for connecting to the rest of Europe.
Its role as a cargo transport centre is also growing yearly, especially in markets outside the EU.

Barcelona Port

Europe's leading cruise port

A major Mediterranean port with the largest offer of logistics and transport services in Spain and Southern Europe, and leader in vehicle traffic, it has 30 specialized terminals and 100 regular lines connecting to 200 ports in 5 continents.

Tarragona Port

Leading chemical hub

Southern Europe's largest chemical products hub
with excellent facilities for chemical companies.

The gateway to Europe, North Africa and Latin America

Barcelona connects to 400 million consumers in Europe and North Africa in under 48 hours, cutting distribution costs by 10 to 15%, compared to northern Europe, and is also an ideal access point into Latin America.

A globally effective logistics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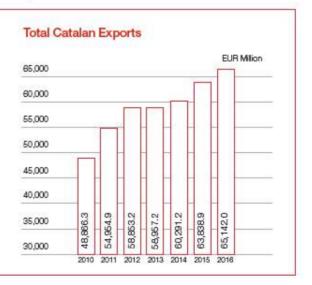
Reaching the whole world, specialised supply chain solutions are available for chemical, automotive and food & drink sectors.

High speed railway and extensive road network

Catalonia is efficiently connected by road and rail to its surroundings. Barcelona has a high speed rail service leading directly to the rest of Europe. A modern road network also seamlessly connects the area to both internal and external markets.

Exporting is part of everyday business in Catalonia

Thanks to its economic activity, with 16,929 regular exporting companies (2016), a strategic location and efficient transport infrastructures, Catalonia is Spain's highest exporting region.



to innovation

Connecting you



The TECNIO certification created by the Government of Catalonia identifies differential applied technology providers and facilitators

ACCIÓ, the Catalan Agency for Business
Competitiveness, certifies the most qualified agents involved in technology transfer processes, and allows companies to discover and access advanced R&D, to find the most suitable technology partners & suppliers, and to raise their competitivenes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cities.

Industry 4.0

Catalonia actively participat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cess engineering has always been an important part of Catalan industry, while the region has also been able to both attract and create ICT businesses. These two factors mean Catalonia is well-placed to face the computerization of industrial processes together with product individualisation, wide-spread integration of customers and business partners in business, and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services. Now, in Catalonia, more and more industries are applying different 4.0 solutions, hand in hand with local technological suppliers.



Lead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s



Barcelona

Synchrotron Park.
This is a 3rd generation
Synchrotron Light facility
located just outside
Barcelona. This large
scientific infrastructure
serves more than 1,000
researchers every year.

Institute for Food and Agricultural Research and Technology (IRTA). The main Catalan agency for food investigation and technology development. Biomedical Research Park (PRBB).

Southern Europe's leader in Biomedical investigation.

Barcelona Super Computing Centre (BSC-CNS). This advanced computing centre hosts Mare Nostrum, one of Southern Europe's most powerful supercomputers.

Institute of Chemical Research of Catalonia (ICIQ). A European centre of reference in chemistry. The Institute of Photonic Sciences (ICFO).

One of the finest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world, leading Europe with its track record in physics and engineering scientific output.

Scientific Park of Barcelona. A quality environment blending research, technology, innovation and business.

Biocat. This organisation coordinates and promotes the health and life sciences sector in Catalonia. APPLUS+IDIADA.

A leading facility specialized in providing design, engineering, testing and homologation services to the automotive industry worldwide.

The Centre for Genomic Regulation (CRG). Also hosting the National Centre for Genomic Analysis, this is an international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of excellence.

· 3rd

Catalonia is the 3rd Western European destination for foreign investment projects in R&D (2011-2016) and accounts for 54% of R&D foreign capital investment within Spain (fDI Markets, FT)

3.7%

Catalonia, with 0.1% of the world's population, accounts for 1% of global scientific production and 3.7% of EU-28 scientific production (Biocat).



Catalonia is the region within Spain that has received more EU Horizon 2020 programme grants, with 28% of Spanish funding and 2.5% of total European funding.



The Eurecat Technology Centre, the result of the integration of advanced technological centres in Catalonia, promotes business competitiveness, and acts as a bridge between R&D public system (knowledge generation) and companies (value generation).

Connecting you

to talent



Education is one of the government's strategic priorities and considered essential to the region'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Times Higher Education has ranked the Catalan university system the 3rd best in Europe.

12 universities

1,050 official degrees and masters

236,000 university students

Great education means great research

Catalonia represents 3% of the European Research Area and concentrates 67% of the financial aid given by the European Research Council (ERC) to Spain (2015). It is the 4th EU region in terms of the number of ERC grants per million inhabitants. Clinical research in human health is an area of special expertise, with six hospitals among the most efficient in Spain in terms of scientific production. The 18 Catalan university hospitals have over 5,000 researchers devoted to life sciences research. The CERCA research centres of Catalonia have reached levels of scientific excellence in various areas, with research groups run by internationally recognised post-doctoral researc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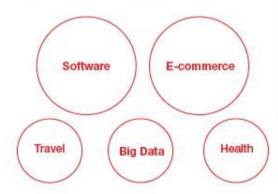
Connecting you_____ to creative

entrepreneurship



Catalonia's entrepreneurial spirit transforms talent into business, as Barcelona's thriving startup culture showcases

Main startup sectors in Barcelona Barcelona & Catalonia Startup Hub



Talent attracts talent

Barcelona's entrepreneurship ecosystem is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With more than 1,200 startups, Barcelona is the 5th European region in terms of startups according to several renowned international sources and it is ranked by the CITIE 2015 report as the 4th Best City for digital entrepreneurship.

Barcelona is also among the main cities for foreign investors and venture capital. Catalonia attracts 56 % of the total investment volume in Spain (ASCRI, 2015) and accounts for 71% of all international VC investment in Spain.

Pier 01 building, the largest space for startups & entrepreneurs in Europe

In the Barcelona harbour, a short walk away from Barceloneta beach, the Pier 01 building is the meeting point for the Barcelona Startup & entrepreneurial ecosystem and the largest of its kind in Europe. This historic building, the Palau del Mar, houses 70 startups, 1,000 workers, incubators, accelerators and the Barcelona Tech City, the city's association of companies and startups working in digital, tech business and ecommerce.

A global mobile and smart technology base

Technology is very much at home in Catalonia and Barcelona, thanks to its Mobile World Capital status, the ongoing organisation of the yearly Mobile World Congress and the yearly Smart City Expo. Barcelona is the 3rd city in the world in international congresses (ICAA, 2016). These events create an international and flourishing tech environment.













Connecting you___ to an open

business mindset

The Government's business focused policies support private sector initia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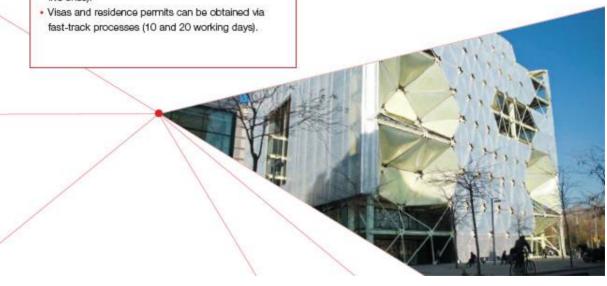


Regulatory issues benefi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in Catalonia:

- A lower Corporate Tax than in most neighbouring countries (25%).
- One of the most attractive tax deduction schemes for R&D&i activities in Europe.
- (Patent box, up to 59% on R+D, 12% on innovation).
- An attractive Holding Tax Regime and the largest Tax Treaty network with EU & LATAM & EMEA countries.
- Employment incentives programmes result in deductions in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grants for job creation.
- Expats coming to work in Catalonia are taxed at a flat rate of 24% up to €600,000 (applicable in the tax period of change of residence and for the following five ones).

Promoting an entrepreneurship culture

- Facilitating incubators & accelerators to support new startups.
- A wide range of funding opportunities, from business angels, equity crowdfunding and pledge funds, to participatory loans and venture capital.
- A Government promoted public platform affording programmes, services and activities provided by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 Fostering clusters to help like-minded companies work together and benefit from common synergies.



Catalonia Trade & Investment

We are the Catalan Government agency for foreign investment and business competitiveness

Full support

Smooth, fast and successful set-up of operations in Catalonia from start to finish.

Track record

With over 5,500 investment projects behind us, we know how to maximise the return on investment.

Expertise

Over 30 years' experience guarantee the results of our free of charge services.

Specialised one-stop-shop services

Investor information

We provide full, practical, up-to-date information on investing and establishing business operations in Catalonia, covering sectorial data, legal issues and competitive analyses.

Business location

Get full and relevant information on industrial buildings, land, office space and logistics centres throughout Catalonia, bearing in mind the specific needs of your business.

International mobility for executives

We offer a fast-track service for work and residence permits for your top employees as well as valuable information on mobility procedures.

Catering to the needs of all international investors

Are you considering a new investment?

All the information you need to know to make entering a new market as seamless as possible.

Do you need us to accelerate your investment in Catalonia?

Our project management services give personalised support to your investment right from the start.

Do you want to grow, reinvest & expand your investment in Catalonia?

Aftercare, expansion and reinvestments are one of our priority activities.

Innovation, tech & business partners

We are your ideal partners when doing business with Catalan companies and can connect you to the best technological and innovation resources in Catalonia.

Business and institutional network

We connect international companies to key institutional partners and business services providers to help them set up and grow in Catalonia.

Financing & incentives

Increase the viability of your project with expert, in-depth information and support on financing possibilities adjusted to your project.

Supplier search

We help foreign companies source suppliers, manufacturing partners, technology providers or developers as well as any other local company to fulfil specific requirements.

Connect to 40 worldwide offices in more than 100 markets



The 40 Catalan Government Trade & Investment Offices offer personalised assistance to Catalan companies wishing to enter new markets and find business opportunities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 Detection of business, technology and innovation opportunities.
- Drawing up of personalised strategic plans for companies.
- Expert consultancy in internationalisation and market studies.
- Organisation of trade missions.
- Assistance in accessing international calls for tenders.
- Identification of technology partners for R+D projects.
- Location of supply channels, partners, distributors and end-clients.
- Soft landing services.
- Staff recruitment in destination countries.
- Support in legal issues when setting up companies.

The Trade & Investment Offices advise and support international companies considering investing in Catalonia and Barcelona, introducing them to the Catalan industrial and economic ecosystem to help them grow, expand and optimise their projects

- Promotion and positioning of Catalonia as the best business location for foreign investment.
- Insight and advice on Catalan economy, sectorial structure and business ecosystem.
- · Qualified assistance on how to get started in Catalonia.
- . Ongoing support throughout all phases of each project.
- Strategic business alliances between international and Catalan companies.
- Identification and location of Catalan suppliers and technology partners for joint innovation projects

ACCIÓ, the Agency for Business Competitiveness

Where everything connects to build a powerful economy

Internationalisation

We connect Catalan companies to the world, offering resources and tools to help them export, enter new markets or set up abroad. We promote international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as well as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o Catalonia.

50% of innovative companies export. 80% of innovative companies expect to increase turnover.

Are you a startup?

- · Support for start-up growth.
- Accelerator sales and internationalisation programmes.
- Access to public, private and alternative funding.
- Exclusive services for technology based firms.

Are you an SME?

- Access to funding to develop internationalisation,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jects.
- · Economic and mentoring support programmes.
- Tailor-made consultancy, training and professionalization services.
- Support in partner search, technology incorporation and access to European programmes.
- Detection of business opportunities.

Are you an investor?

- Detection of investment opportunities.
- Raising of foreign investment.
- Organisation of investment forums.

Innovation

We successfully connect companies and projects to the market. We accompany companies in their process of competitive differentiation and constant search for new business opportunities through systematic innovation, technology incorporation and internationalisation.



We assist 24,000 companies yearly

Financing
Start-ups
Clusters
Innovation
Technology transfer
Foreign trade
Investment attraction

Catalonia.com

catalonia@catalonia.com

Our Barcelona office

Passeig de Grácia, 129 08008 Barcelona Tel. 00 34 934 767 287

Catalonia Trade & Investment Offices

Accra / Amsterdam / Beijing / Berlin / Bogota / Boston / Brussels / Buenos Aires / Casablanca / Copenhagen / Dubai / Hong Kong / Istanbul Johannesburg / Lima / London / Mexico City / Miami / Milan / Montreal / Moscow / Mumbai / Nairobi / New York / Panama / Paris / Sentiago de Chile / São Paulo / Seoul / Shanghai / Silicon Valley / Singapore / Stuttgart / Sydney / Tehran / Tel Aviv / Tokyo / Warsaw / Washington DC / Zagreb-Belgrade

Catalonia & Investment



[별첨 4] 폭스바겐(세아트 자동차) 공장 소개 자료



Connected customers. connected cars.

As part of SEAT's commitment to connectivity, the company is creating the gateway to the digital ecosystem, the SEAT ID, which allows users to customise and







of the Full Link system allows users to connect their cars with their mobile devices through three available options: Apple CarPlay, Android Auto and MirrorLink.







The company is working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ew actinologies in SEAT verticles that make it possible to affor drivers a perfect project and care experience of the wheel of their cer. The immuor has been considered by the consumerary proposed by influent continue.

SEAT is digital occuryation to growing day by day and the brand's interiors to recoporate some of the new focus are soft to emodels that of the such did not the models in 2018 and 2019. Bed, three traffic bed coccur, make recommendations conducingations found on changes in the offset of agend on just parties of the tocknowledges that are being sivelepod in collections with such residency portions such as Scoop's Mark America New Testindence and side of the product in section such as francial services, melbid applications in visual residency methods and side memiliance of the sections in the section in methods and side memiliance of the sections.

In May, the Automatilla Borussian awart wist the stopp chasen by SAT to present the new Wate applie Andreid Aust, Societie GPS navigation application, which will be composite with all of the braids care acquiped with Null Link, such outsile result but The incorporation of one of the most estable, used and self-agented managions one; sintensit, SATA is sets to provide chronous profincings or fractions mobility for those who now Wate on their whick, afforming agentificant acides in Julius.

Another groot or aware, while coals the first fall titling Show held in September, related as the supplied SERT in province that it would be the first or branch or Europe to integrate the respective viola service Annabe. Asses with its vehicles received jun-vehicles in Figurity to 15 derman. This applies has been included in the Lann and Alaco models area to the 2017 and it will be odded to the bain. The Annaorother area (Mr. Heary 2018) White Alex SERT incomment with the pilot or contraction and the service of the se



button and ask dobut the latest news, control ther home remarks, manage the relationship with their lager of rotate arup prior of interest, to mane just a few of the more than 20,000 features that the service offers drivers. The integration of Aleso into the SEAT range will contribute to grow such that an increasingly wide range of benefits will become contrible to users.

Thanks to this innovation, in October AUTOBEST awarded the SMARTBEST 2017 pecial award to SEAT for being the first brand in Europe to integrate Amazon Mana into its range of cons. This is the first award in the world dedicated to connectivities in the outcomative industriu.

contestibility in the automative industry.

In the some view, the comprony and felefations also signed an agreement in Catabar to work together on innovative intuitives in the automative including agreement, which will postion ESET as a benefit man's in connected and digitalize mobility subdistors and which in corporates felefations and subgist exceptions features on three man areas the shared use of imagina to design apprivate industry and the production of Section and Section and

SEAT has signed agreements with different partner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ew technologies in its vehicles.

company is relationships with suppliers as part of the faults by U.

In soldition, SEGI and Champion Medica. List, imposter of the bornal in
braid, created MPLDMA, a cross-disciplinary team of specialists founded on
technological investors projects related to the commercial car and smort
mobility pervises. The good is to develop the company is elitinative by this braidstatistics and other players related to mobility and bit destript invocation projects
that may just on the validation and beamset smodels for the company. This
relations, within its based in left Aniv and valid operate throughout braid, with hore
on viscal learn of three professionals with or beginning that start, exclusing
phose selecting the best innovations and analysing their inglementation in plat.





of new vehicles to the commercial network

Wholesales of new SEAT vehicles to the network reached a total of 464,966 units, the highest since 2001.

| | | | Variation | |
|---------------------|---------|---------|-----------|--------|
| | 2017 | 2016 | Absolute | % |
| SEAT models | 464,966 | 401,201 | 63,765 | 15.9 |
| Mii _ | 13,775 | 18,227 | (4,452) | [24.4] |
| Ibiza | 150,622 | 144,961 | 5,661 | 3.9 |
| Arona | 16,024 | 0 | 16,024 | - |
| Altea | 431 | 294 | 137 | 46.6 |
| Leon | 160,223 | 156,212 | 4,011 | 2.6 |
| Toledo | 13,510 | 17,350 | [3,840] | [22.1] |
| Ateca | 77,654 | 33,423 | 44,231 | |
| Alhambra | 32,727 | 30,734 | 1,993 | 6.5 |
| Audi models | 114,477 | 135,261 | [20,784] | [15.4] |
| Q3 | 114,477 | 135,261 | [20,784] | (15.4) |
| Total wholesales(*) | 579,443 | 536,462 | 42,981 | 8.0 |

 $| ^{ + } |$ Figures for 2017 and 2016 do not include 15,072 and 11,482 used vehicles, respectively.

